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백성 중에 있는 죄 (여호수아 7:1-8:29)

대승한 부대와 대패한 부대의 차이는 환희와 절망으로 갈립니다. 갈멜 산에서 기도하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는 영적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렙 산에 엎드려 하나님께 불평하며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한 엘리야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항상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가나안 정벌의 영웅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리고에서의 승전은 빛나는 승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 와서 그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부분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유일한 패전 이야기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를 물리치거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불순종의 자식들의 필요를 박탈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불평은 죄를 낳고 그 죄는 불순종을 불러왔습니다. 불평, 불만은 최악의 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교만, 불신, 반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고 했습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이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만 있을 것입니다.

(2) 탐욕 때문입니다

아간은 전쟁 시 이긴 자는 진 자의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아간은 이긴 자였고, 그의 같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의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의 정복자는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불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수 7:11).

아간이 도둑질 한 것은 두 종류였습니다. 금과 은, 즉 하나님의 집에 바쳐진 물질과 아름다운 시날 산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꿈꾼 것입니다. 아간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결국 10계명을 범했습니다. 불만과 탐욕은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거짓을 무기로 한 보이는 죄입니다. 마음속에 숨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악한 열매로 나타내게 됩니다.

1. 이스라엘의 패전 원인

여리고 성에서 대승한 직후 이스라엘에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기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이 성 전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충고만 듣고 아이 성을 함락하려고 했고 결국 그것이 패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이 성에서 실패한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죄의 성장과 발전

우리는 본문에서 아간이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했는지, 그 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군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전용사인 그가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 은, 동, 철은 정복의 첫 열매로서 여호와와 곳간에 거두어들이고(수 6:24), 그 밖에 모든 것은 불사르고 백성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정도의 금명이 하나를 자기 장막 땅 밑에 감추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간의 이 같은 탐욕은 결국 이스라엘을 민족적, 국가적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아간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1)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새 땅에 입성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아간도 부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 자기 집,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를 소유할 수 있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생각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그들의 모든 꿈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40년간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었고 미래를 위한 그 어떤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전리품을 보고 이런 기회마저 박탈하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도둑질이라도 하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3. 심판과 축복

비밀히 지은 죄는 마지막 심판 날 크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곧 밝혀졌고 여호수아 앞에서 죄를 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도둑질한 것을 회수한 후 자녀들을 포함한 온 가족과 소유물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 불사르고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이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를 물리치거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불순종의 자식들의 필요를 박탈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심판 받는다는 것은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감사하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단기선교팀 파송

파송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 제6기 단기선교팀 파송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단기선교팀은 8월10일(목) 오후 5시 5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파라스 지역으로 가서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를 도와 현재 진행 중인 교회건축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펴고 8월18일(금)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이번에 파송받는 제6기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지에서의 모든 사역을 온전

히 감당하여 앞으로 계속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게 될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기도한다.

제6기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도: 장석남 목사 · 단장: 신용식 장로
- 홍일성 오유식 이남성 이강인 정동호 김영주
- 최소희 이자혁 문옥일 김혜중 노창훈 김경철
- 오주명 최지혜 최수정 박준희 배석훈 이상숙
- 이승준 이한나 김성주 김다희 박수진 박고은
- 이인영 김미래 송한솔 김세연 (이상 30명)

2006년 2학기 장학생 47명 선발

8월13일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장학금 수여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정병무 장로)는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 2006년 2학기 장학생을 선발, 명단을 발표하였다.

<브리스길라 장학생>

최인애 강혜주 임지선 정휘제

<송암 장학생>

박한샘 박선희 이영희 안영수 정다운 김지현
장동호 이한나 성기방 이병훈

<일반 장학생>

김성주 최명훈 최진경 남혜림 조광희 장운정
신기원 오태연 하정 고아라 양현진 임형빈
장은규 정승용 고광석 구슬희 조현정 김윤지

<일반 디아스포라 장학생>

채정석 김분이 박복실 김경철 문정훈 오태봉
최명진 박주은 권예진 안종혁

<고등부>

한성현 이주희 임주현 김성민 백성은

2006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

9월21일(목)~9월22일(금) 서울교회 및 한티공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한편 서울교회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가 시작된다.

이번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는 9월21(목)과 22일(금) 양일간 서울교회당(1층, 8층 식당)과 한티공원에서 열리며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성도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출품하여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집 건립에 은성도가 참여하기 바란다.

이에 따라 교회는 먼저 바자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2006 이웃사랑과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대회장: 이종운 목사
- 지도: 이규정 목사 · 위원장: 노송성 장로
- 기획부 부장: 오광환 차장: 오승민
- 재정부 부장: 김영주 차장: 송인권
- 판매관리부 부장: 최광성 차장: 이동만
- 시설부 부장: 임옥균 차장: 장양일
- 설외부 부장: 김규태 차장: 조동완
- 홍보부 부장: 최차순 차장: 허숙

	지도	점포장	영업부장	총무부장	실행위원
1점포	이규정	박두영	윤명구	이인숙/안미경	김광룡 홍일성 강승웅 박광식 전행자 박영자 임승자 김일순
2점포	이규정	이복규	한주찬	배병이	최형열 최홍렬 한충현 김영호 김익환 김영빈 김원중
3점포	이태훈	김세재	탁경준	김유경	유승순 이경구 최정인
4점포	이태훈	오정수	구정두	박미혜	손태기 김영주 김광태 김성찬
5점포	정수길	성준경	이학명	장낙희	이병현 이승래 최소희 채경희 김영희 김정희 엄금순
6점포	정수길	노송성	서명조	윤숙희	권장철 김병용 박정수 최용걸
7점포	장석남	이영기	신종건	한성욱	이태원 정동학 유휝석 김재성
8점포	정석남	홍성주	강낙훈	김정은	김중윤 이동권 김영일 이봉선 한춘홍
9점포	서명철	이관규	유신	황노전	이제원 김찬웅 한중우 임낙식
10점포	서명철	진돈	김재근	김은순	조성엽 권장환 진승근 이선우
11점포	한상은	왕경래	한상준	유숙인	이승우 양인수 이양철
12점포	한상은	진기섭	홍창배	김선영	김성준 장덕
13점포	윤영국	조정식	김은태	박순복/양정실	윤동수 주동재 신항범 윤태욱 박조현
14점포	윤영국	신용식	차도훈	이신애	이계홍 정동호 유기찬 김재중 차영도 한광마
특판점포	이규정	오정수	유을상	박춘자	김신영

2006년도 하반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

-찬양대원-

- <가브리엘> : 김형희 한난숙 현승희 김은석 윤석원
- <할렐루야> : 백해인 김정미 최미희 김광성 김성기 김신호
박은호 임광우 이인형
- <임마누엘> : 박춘자 박용주 성정민 송인수 정승용 홍일성
김도훈 한장완 황유석
- <베들레헴> : 김민철 김성호 김승배 방효철 원용규 최명남 한인진
- <예루살렘> : 서정숙
- <호산나> : 한은미 권택속 신혜진
- <시온> : 강은경 남상경 이영자 오영숙 임혜원 손태현 김재성
송성식 이승래
- <은빛> : 안창휘 신종현 한치중 윤익서 민정이 원명희
- <그레이스 핸드벨>
- 김성태 신은미 장옥경 전준영 정연준 최인애 최정희 황지영
- <아멘 관현악단>
- 구희원(바이올린) 장은선(콘트라베이스)

-교구간사-

황노전 권사(9교구)

-다락방장-

정복순 집사(1-11) 유을상 집사(6-2) 유묘종 집사(9-7)
노문환 장로(11-1) 송명원 성도(11-13) 위성남 집사(12-12)
이은미 집사(13-27) 김진희 집사(14-18) 박정임 집사(14-19)

-부다락방장-

이민자 권사(5-5) 최미아 권사(5-6) 박정순 집사(6-2)
유종숙 집사(6-11)

-교사-

<중등부> 허환 김석범 <고등부> 노정숙 김민기
<새가족부> 노제현 김정희

서울세계도서관 정보대회

한국 교회체험 - 우리교회에서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가 8월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 약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이들 중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부흥상을 체험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한국 준비위원회는 우리교회를 선택하고 21일(월)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를 체험케 된다.

Pilgrims' Trip 성지 순례단

-아직 문이 열려 있다-

Pilgrims' Trip 성지 순례단 모집 마감을 한 지난 7월30일 까지 60명이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10월30일 출발예정인 순례단은 신청접수를 아직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 전쟁소식이 있어 염려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때까지는 포성이 끝날 것으로 믿고 추진한다고 한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차 마감일은 8월31일이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파송을 위하여

카자흐스탄에 성령의 바람이...



신용식장로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단장)

그동안 준비해온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 30명이 8월 10일 출발을 합니다.

3월 6일부터 선교대학 훈련을 시작하여 8월 3일까지 찬양, 연극, 율동, 태권도, 미용, 의료와 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출발 준비를 위한 최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훈련에 참가한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로 청년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바른 선교관을 정립하고 선교지 탐방을 통해 타 문화권을 이해하며 현지 선교자의 사역을 자원하고 선교에 헌신할 비전을 갖는 목적을 갖고 출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는 서울 교회에서 지원하여 현지에 교회를 건립하는 일을 이루게 될 것

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인구 1,500만 명의 이슬람 종교국가로 카자크인, 러시아인, 고려인 등이 섞여 사는 나라이며, 이곳에 서울 교회에서 이미 이은준 선교사 가족을 파송하고 이번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대다수 민족들이 전통적 이슬람 신자들이고 기독교 문화가 침투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 파라즈에 서울 교회를 통하여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을 사랑하시어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은혜의 말씀이 실천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단기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주신 카자흐스탄 중보기도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도서실 연일 학생들로 붐벼

성도와 이웃주민을 향해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교회가 이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조용히 책도 읽으며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서울교회 도서실이 연일 공부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교회 도서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10시까지 주일은 오후1시 30분부터 4시30분까지 도서실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조용히 공부하거나 책을 보려는 이들의 많은 이용바란다.

한편 서울교회 도서실은 계속하여 도서실에 비치할 양서들을 기증받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치하고 있는 많은 책을 기증하여 주셔서 무료로 대여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서적이 더 비치되어야 한다. 가정에 가지고 계신 서적 중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원하는 서적을 기증해주시면 훌륭한 장서로 비치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태서(편집부)



전도학교 폭염 중에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어

제 19기 전도학교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매주 교실 수업, 주중 개인학습, 현장전도실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12주간의 훈련을 통하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고 있다.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교실수업은 복음제시, 찬양과 기도, 총회발행 전도학교 교재 강의, '피플퍼즐 세미나' 등으로 진행된다. 수업시간은 주일 오후 2시 - 4시,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이상 3개 학급이 운영 중이다.

주중 개인학습과 현장실습은 화요일 오후 도곡plex아파트단지 축호 전도, 수요일 오후 축호 및 노방전도, 수요일간 노방전도, 목요일 오전 은마아파트단지 축호 전도, 목요일 중보기도, 토요일 오후 축호전도, 토요일 야간 축호 전도 등 7개 실습지로 나뉘어 축호전도와 노방전도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총 105명이 전도훈련에 참여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로 훈련받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여름철 건강관리

오중원 집사(1교구)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소모, 음식물의 오염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지나친 에어컨 사용은 체온이 급속히 자주 바뀌고 체온조절이상으로 쉽게 피곤하고 근육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냉방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면을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고 수면을 취하기 보다는 잠자리 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찬물로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이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이 정신과 신체건강에 좋습니다. 또 가능한 실내외 온도 차이를 5-8도씨 내외로 유지하며 한 시간 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독성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독버섯 복어 등 자체가 독성이 있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 나타나는 식중독도 여름철에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포도상구균이 부패한 음식물에 증식하면서 독소를 생산하는데 이 독소가 있는 식품을 먹으면 6시간 이내에 설사와 복통이 발생합니다. 이 포도상구균의 독소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이미 독소가 생성된 음식물은 끓여

먹어도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도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먹게 되면 감염이 되어 고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설사를 유발하지 않지만 사망률이 40-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만성 간장질환자나 신장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분은 여름철 해수온도가 17도 이상 올라갈 때 비브리오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게되는 경우에 잘 발생하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중독이나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출이나 용변 뒤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음식물은 10-20분 끓여먹고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면 수분이 심하게 증발되고 건조해져서 탄력성이 줄고 각질층이 두꺼워져 노화현상이 촉진됩니다. 특히 자외선이 우리 몸에 닿으면 피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여성들의 고민거리인 주근깨의 원인이 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이즈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영유간에 강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시민양성 -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조인주 (고등부)

이기쁨 (중등부 3학년)

수련회 첫날부터 계속 비가 왔다. 나방도 많고~ 나무도 많고~ 냉수로 샤워를 해야만 하는 환경이었지만 기도시간만큼은 최고의 수련회였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밤에 우리는 2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팠지만 우리의 마음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이번수련회에서 나는 큰 기적을 보았다.

첫 날부터 멈출 줄 모르던 비가 둘째 날 야외에서 물놀이 프로그램 때만 잠시 멈췄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적이냐고 말하겠지만 우리 기도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분 목사님의 강하는 정말 우리 삶에 도움되고 영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말씀들로 너무나 감사했다.

이종운 목사님, 김세재 장로님. 그리고 한상은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해주신 정수길 목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대학부 부교사 누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선생님들은 이번에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하셨고, 우리들 또한 학원 수업, 부모님의 반대, 피서, 친구들의 유혹 등 참석을 방해하는 요인을 물리쳐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이 작은 외침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친구들을 수련회에 보내주셨고, 프로그램들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

몇 마디의 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수련회였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웠고, 한 구절씩 성경을 의문 후 식사를 하였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기도시간이 적었다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게는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온 나는 지금 지속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천국시민양성 - 청년부수련회 초대이글

말씀이 이끄는 삶

이화용 (청년부)

8월 20일 주일 찬양예배 후 23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평택 진위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 아래 이종운 목사님의 특강, 청년부 장석남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 및 신약의 파노라마 강의와 정수길 목사님의 크리스찬 청년의 결혼관에 대한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시기인 청년의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 여름 수련회로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힘이 되도록 각자의 바쁜 일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쉴 틈없는 직장 스케줄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이끌어 가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도록 2006년 여름 그 어떤 해보다 뜨겁고 풍성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예정총회(고려) 전국장로연합회 여름수련회 강사로 집회를 인도한다.
- 교역자 하기 휴가 : 윤영국, 임규현 · 대행: 서명철, 이대훈
- 박연경(초등부) 전국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대회 소년부 성경암송부문 동상 수상
- 이전개업: 하숙 집사, 오치열 집사(11교구) '헬스포'역사동 720-13 성지하이츠1빌딩 1017호 T. 2051-8471
- 주간식당봉사: 권사회(8월6일) 빌립교회(8월13일)
- 금주의 식사제공: 김상철 장로 최원자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령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폭염 속에서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방글라데시 유스호스텔 건립 위하여
3.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4.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도록
5. 북한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위하여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